2021년 6월 초 개원
신세계요양원
061)395-2580 장성읍 방울샘길 12 (장성읍 영천리 1493-5)


# 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 3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9-6000 1946년 10월 26일 창간 i-honam.com 제 3144호 (음력 4월 3일) 2021년 5월 14일 금요일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 광주시-노동부 '맞손' 고용 안정 공동 대응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고용시장에 위기감과 '직장 갈아타기' 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고용노동부가 광주지역 주력산업의 고용 안정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맞손을 잡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는 13일 이용섭 시장과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북구·광산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중회의실에서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북구·광산구 등도 지자체 참여
### 2025년까지 5년간 466억 투입
### 5000여명 일자리 창출 목표

이 사업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한 사후적 지원이 아닌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중·장기 일자리사업으로 전국적으로는 광주와 함께 부산, 울산, 충남 등 4곳이 우선 지정됐고, 광주에서는 시와 북구, 광산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

2월부터 지난달까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컨설팅을 거쳐 ▲가전기업 시너지업 일자리 창출 ▲자동차산업 재충전(Reload) 경쟁력 강화 ▲고용안정 거버넌스 활성화 등 크게 3가지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광주의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생산액의 45%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지만 완성차 생산량이 2014년 54만대에서 지난해 44만대로 감소하면서 이에 따른 부품기업 경영이 악화되고 있고, 편중된 산업구조로 인해 위기 상황이 발생할 시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 가전산업은 지속적인 대기업의 해외이전으로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같은 경영난은 고스란히 고용위기와 직결되고 있다.

특히 광주는 가전산업에서 지난해 폐업·도산·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퇴직자 수가 750여 명으로 이들 위기 근로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가전의 침체와 일자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투 트랙을 마련, 2025년까지 5년간 466억원을 투입해 5665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올해는 1000여 명 고용을 목표로 88억5000만원을 들여 자동차와 가전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위기근로자의 수용력을 높이고 전략산업인 인공지능, 공기산업, 친환경차 등 성장산업으로 숙련 수준별 이·전직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산업구조 변화에 미리 대응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실직(예정)자들의 빠른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한 집중할 것이며, 자치단체가 총력을 다해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오월영령 희생정신 추모한 '함평 흰나비'**

광주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닷새 앞 둔 1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유족과 전남 함평군 공무원이 518마리의 추모나비를 날리고 있다.

## "7월8일까지 참문어 잡지 마세요"

### 전남도, 24일부터 금어기 지정
### 동·서부 산란기 달라 의견 차이

전남도는 오는 24일부터 7월8일까지 46일간 참문어 금어기로 지정하고 포획·채취를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참문어 보호를 위해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신설함에 따라 전남도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 금어 기간을 확정했다. 참문어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주로 서식한다. 지역에 따라 돌문어, 왜문어라 불린다. 산란은 주로 5~8월에 하며, 주산란기는 6월이다.

전남지역 참문어 생산량은 기후 변화와 남획 등으로 감소세다. 지난 2010년 4871t이었던 것이 2013년 3500t, 2016년 2348t, 2018년 3224t, 2020년 2787t으로 줄었다.

전남도는 전남해역에 적합한 참문어 금어기 지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관련 시·군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여수·고흥 등 동부권과 완도 서부권 어업인의 희망 기간이 달라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다, 지난 11일 도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와 지역별 어업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24일부터 7월8일까지로 정했다.

위광환 해양수산국장은 "지역별 이해관계자의 많은 진통과 고심 끝에 어렵게 지정한 만큼 금어기를 철저히 지켜달라"며 "전남의 금어기간이 해수부와 달라 어업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철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은 브리핑룸에서 완도 문어잡이 연합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어장별 산란 시기에 맞춘 금어기 지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동·서부 간 바닷물의 수온차로 실제 산란 시기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문어의 개체 수 보전을 위해 획일적인 금어기를 지정하는 것보다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역별 금어기를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환기자

## 영유아 아스트로바이러스 장염 유행…검출률 25%

영유아를 중심으로 아스트로바이러스 장염 환자가 유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3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함께 광주지역 설사환자 검체를 정기 모니터링한 결과, 5월 현재 수집된 표본검체 104건 중 장염바이러스 검출률이 48%(51건)로 지난해(14.6%)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절반인 26건이 아스트로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됐다. 특히, 5세 이하 영유아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경로는 분변, 경구감염으로 감염된 환자의 대변으로 35일간 바이러스를 배출한 보고가 있는 만큼 환자 배설물의 위생적 처리와 오염 우려가 있는 문고리, 장난감 등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기동취재본부

토요일은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 '7월 초여름' 광주·전남, 낮 기온 30도 안팎 더위

### 일교차 15도 가량 벌어져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다.

13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전남 지역 낮 최고기온은 23~31도 분포를 보이겠다.

이는 평년 기온(21~25도)보다 4~7도 가량 높은 것으로 전날에 이어7월 중순에 해당하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14일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한 햇볕 영향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일 것으로 예보했다.

같은 기간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안팎일 것으로 보여 낮과 밤의 기온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이상 크겠다.

15일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아침 기온은 다소 높아지고 낮 시간대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